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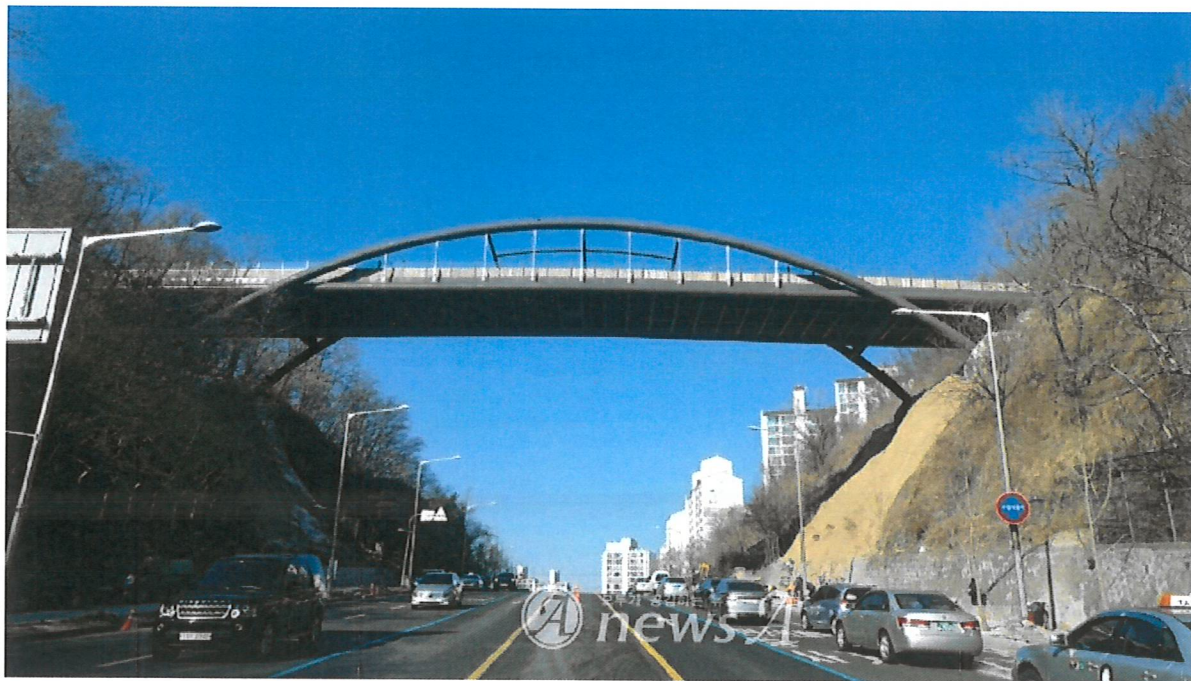


HOME > 전국뉴스 > 서울

무악재 녹지 연결로!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안산자락길에서 무악재 하늘다리 건너 인왕산 한양도성길 접근 편리

뉴스에이 천선우 | 승인/2017.12.15 08:33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

[뉴스에이=천선우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3일 안산(鞍山)과 인왕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개통했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며 도로로 단절됐던 곳이 45년 만에 다리로 이어진다.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이 다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404'와 '종로구 무악동 산3-10' 사이 일명 무악재고개를 잇는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슬림한 형태로 시각적 중압감이 적고 구조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 교'로 세워졌다. 목재 덱(deck) 계단(333단), 목재 덱 로드(63m), 황토포장(150m²), 마사토 포장(160m²), 덱 쉼터(1곳), 정자(1곳)로 구성돼 있다. 총사업비 62억여 원은 모두 서울시 비로 지원받았다.

서대문구는 소나무와 구절초 등 모두 31종 2만 6백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다. 특히 야생동물 이동을 고려해 ▲식이(食餌) 식물인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밀원(蜜源)식물인 산철쭉, 짚레나무, 쑥부쟁이, 벌개미취 등을 수종으로 선택했다.

앞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으로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식물의 자연스런 이동과 이용 시민의 편의도 높이기 위해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으로 동식물 이동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안산자락길에서 이 다리를 거쳐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포함해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가 3곳에서 개통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에이 천선우 dimple100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현장 행정] 안산 다람쥐, 인왕산 소풍길 열렸네

입력: 2017-12-14 22:34 | 수정: 2017-12-15 00:05

“주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안산과 인왕산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안산과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을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행사에 참석한 김영중(왼쪽 네 번째부터) 종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호진 서대문구 의회의장, 김복동 종로구의회의장이 기념 조명 버튼을 누르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안산과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을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열렸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추위 속에서도 개통 현장을 보기 위해 150여명의 주민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산 쪽에서, 김영중 종로구청장은 인왕산 쪽에서 걸어와 다리 한가운데서 만났다. 1972년 3월 통일로가 생기면서 단절됐던 두 산이 다리를 통해 45년 만에 이어진 것처럼 두 구청장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자연과 인간이 공감하는 녹지연결로를 만들자는 서대문구의 제안에 종로구가 흔쾌히 응하면서 만들어졌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2014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서울시 전문가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폭 11.7m, 길이 80m, 높이 22m의 다리는 시각적 중압감을 줄이고 안정성이 우수한 강아치교(강합성 콘크리트 아치교)로 세워졌다.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만큼 동물 이동통로(7m)를 사람 통행로(2m)보다 넓게 계획했다. 하늘다리 곳곳에 소나무와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덜꿩나무, 조팝나무 등 모두 31종 2만 600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었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문 구청장의 민선 6기 공약이기도 했다. 문 구청장은 “백두대간 한북정맥에 해당하는 북한산에서 서울 주산인 북악,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연결해 역사적 맥을 잇고 동물의 자연스러운 이동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며 “과거 연결됐던 두 개의 산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비만 증가도가 전국 최하위권인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안산 무장애 자락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하늘다리가 열린 만큼 인왕산 한양도성길까지 주민들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게 돼 주민들이 더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문 구청장과 2015년 서대문고가도로 철거에 이어 올해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까지 함께했다”며 “종로구 주민들이 서대문의 안산을, 서대문구의 주민들이 인왕산을 자주 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든 62억여원은 모두 서울시가 지원했다. 서울시는 무악재 하늘다리를 포함해 산과 산을 잇는 녹지연결로를 모두 3곳에 만들었으며 2030년까지 매년 1~2곳씩 늘려 나갈 계획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